

3월 봄의 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대학 캠퍼스는 새로운 신입생들을 맞아 더욱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사회복지학과에 새로 입학한 새내기들도 함께 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이들의 어깨에 가슴에 담겨있는 것이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신입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혹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 개인별로 각기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복지라는 학문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졸업 후에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최근 사회복지계에는 급격한 변화들이 알게 모르게 회오리처럼 일고 있다. 사회의 성장과 발전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이기도 한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므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도 중심이 되는 키워드로 발표된바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인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해결방안모색이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핵심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에서 사회환원금으로 내어놓은 8000억원을 이 분야에 일부 편성하고자 하는 안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커다란 정책적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사인 우리들의 노력과 생각들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생각이 미치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적인 대처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작 우리들은 그러한 변화를 주도해나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지 변화된 제도와 정책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인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결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업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라고 외치고 있고 우리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전문성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분야인 사회복지에서조차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

비전과 꿈을 가진 사회복지사

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이 역할은 비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혹은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과연 이들에게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 분야에서 조차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이거우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게 클라이언트의 가정을 방문하고, 내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몸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릴 시간이 없어 일년에 한 명꼴로 현장에서 생을 달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나오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조차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어려운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중에 하나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국민전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해나가며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말없이 일을 하는 선한사람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이 바뀌고 사회인식도 바뀌었다고 하지만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비해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을 증진하

고 반쪽이 아닌 온전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비전을 보다 명확히 정립

비전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어쩌면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비전이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며, 실천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말하는 것이다. 하루, 한 달, 한 해가 모여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모습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구체적이고도 훌륭한 미래의 청사진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며 그러한 청사진을 이뤄내기 쉬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은 어떤 한사람이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견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의 개념은 이미 우리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복지에서는 본격적인 도입이나 활용은 아직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적 기술 습득 및 실천

다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면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한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설계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방법에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사회 전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계에도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지방총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사회복지 각종 단체에서 우리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여 후보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에의 참여와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지 한명의 사회복지사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의견들이 모이면 클라이언트를 대변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대변하게 되며, 우리가 가진 비전에 맞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캠퍼스 곳곳에는 노란 개나리와 진분홍색의 진달래가 장관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개한 꽃들처럼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는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단순히 수업이라는 것이 졸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통과례정도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의 비전을 확인하고 그 꿈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실천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공유하며 새로운 변화를 적용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하며 우리의 진정한 비전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전문성이 제대로 빛을 발하며 일부 정치인들의 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복지사회로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봄 연두색 새순과 함께 우리 사회복지사의 비전도 새움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란다. ☀